

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[추천형]

인문·사회·통합계열 (오후)

면접구술시험 문제

※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. (총 100점)

제시문 (가)

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(Freud)는 어떤 대상을 상실했을 때 상실한 대상에게 쏟아부었던 리비도(libido)*를 서서히 거둬들여서 새로운 대상에게 쏟아붓는 과정을 애도(mourning)라고 말한다. 그런데 상실한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상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때 애도는 불가능해진다. 이처럼 애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를 프로이트는 우울(melancholy)이라고 말한다.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억압된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지 귀환할 수 있다고 말한다. 애도되지 않은 상실도 우울로 남아 우리 안에 머문다. 애도와 우울은 흔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인식되지만 여러 학자들은 이것이 사회적인 일이며, 때로는 정치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. 상실과 애도는 사회적인 층위에서 다양한 계기들과 연결되며, 때로는 ‘애도할 수 있음’과 ‘애도할 수 없음’ 사이에서 해당 사회의 다양한 수준과 경계가 드러난다. 한 학자는 대부분의 사회가 저마다의 고유한 애도 방식을 갖고 있는데 ‘애도할 수 없음’의 상황에 직면할 때 큰 문제를 겪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.

(*리비도(libido): 좁은 의미로는 성적 본능이나 욕구, 충동 등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인간 개개인에 내재한 정신적 에너지를 뜻하는 말이다.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해석한다.)

제시문 (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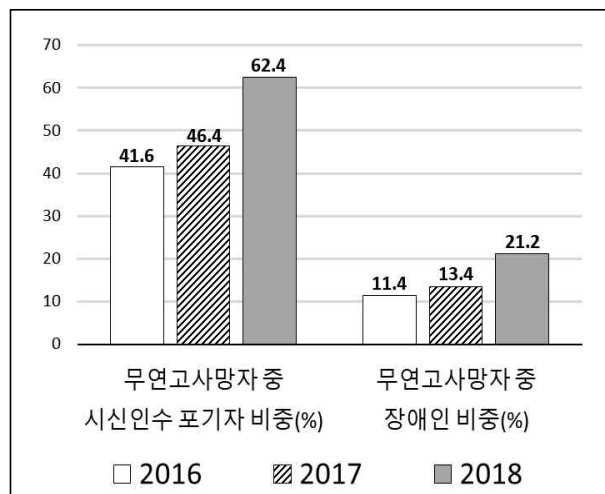
인간은 누구나 죽는다. 인간은 어떤 의존 없이 죽음에 이를 수 없고, 죽음 이후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.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공동체 내 관계와 이 관계에 기반한 의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.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모여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, 타고난 상호의존성과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구체적인 예로 사회보장 정책을 펴서 국민을 보살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들 수 있다. 하지만 공동 책임의 원칙이 국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, 도시와 지역 사회, 직장, 사교 단체, 종교 단체 등에도 이 책임과 연관된 다양한 역할 규범과 기대가 존재한다.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.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의 관점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의 죽음조차도 나의 애도 대상이 된다.

제시문 (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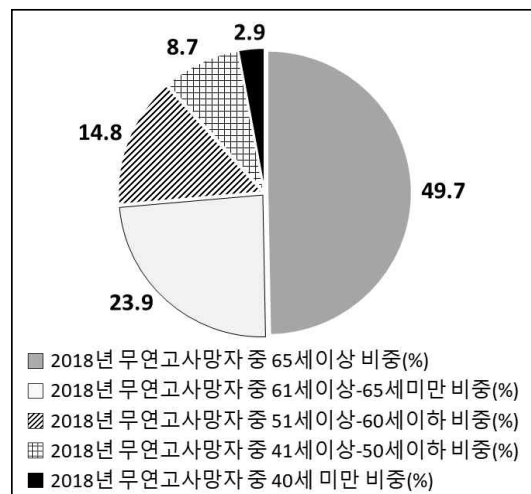
뉴욕시는 ‘COVID-19’ 희생자들의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 트럭을 사용하고 있는데, 대유행의 절정기에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시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자 이 트럭들을 1년 전부터 임시 영안실로 사용해왔다. 뉴욕시 검시국은 ‘750구의 시신을 브루클린 부두의 냉장 트레일러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’고 말했다. 그런데 수석 검시관실의 부청장은 시의회 위원회에서 ‘39번가 부두에 안치된 시신들 중 상당수가 하트 섬의 도시 공장에 묻힐 수도 있다’고 말했다. 뉴욕시는 무연고 유해를 하트 섬에 묻기 전에 유해 보관 기간을 14일로 단축하고, 무연고 유해를 나중에 옮길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만 섬에 묻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.

제시문 (라)

다음 그래프는 A국가의 복지 관련 부서에서 조사한 무연고사망자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연고사망자 중 시신 인수 포기자의 비중과 장애인의 비중(2016년~2018년, <그림1>), 그리고 무연고사망자의 연령대별 비중(2018년, <그림2>)을 표시한 것이다. 무연고사망자는 2016년에 1820명, 2017년에 2008명, 2018년에 2447명이었다.



<그림1>



<그림2>

[문제 1] 제시문 (가)와 (나)를 바탕으로, 제시문 (다)가 제시하는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. (50점)

[문제 2] 제시문 (가)와 (나)를 바탕으로, 제시문 (라)의 그래프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 현상을 ‘애도’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. (50점)